



“7월에만 5홈런” 이우성 챔스필드 맞춤 젊은 거포

전신 NC시절 포함 이번달 홈런 1위

챔피언스필드에 어울리는 젊은 거포가 등장했다.

KIA타이거즈 이적생 이우성(25)이 심상치 않은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우성은 지난 주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3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모두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홈런이었다. 그것도 7월이 뜨겁다. 전신 NC 시절을 포함해 7월 홈런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한화와의 주말 첫 경기에서는 0-0이던 4회말 김범수를 상대로 좌월 3점 홈런을 날렸다. 이적후 첫 결승타를 터뜨렸다. 이날 2안타 3타점을 생산했다. 지난 7월 광주 LG전에서 역전타를 날렸으나 재역전을 당해 결승타 기록이 지워졌다. 그러나 5일 만에 첫 결승타를 만들었다.

이후 14일 위닝시리즈를 놓고 벌인 주말 3차전에서는 3-1로 앞선 3회말 한화 채드벨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날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8회말 프레스턴 터커의 우월 솔로포에 이어 주자를 1루에 놓고 125m짜리 중월 홈런을 날려 승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작년 7월 5일 사직 롯데전 이후 1년 만에 멀티홈런을 날렸다. 이날도 3타점을 쓸어담았다.

지난 6일 이명기와 맞트레이드로 NC를 떠나 KIA로 이적한 이후 7경기에서 19타수 6안타, 타율 3할1푼6리, 3홈런, 7타점을 기록했다.

아직 팀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준수한 성적이다.

무엇보다 팀에게 가장 절실한 장타 본능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6개의 홈런 가운데 5개가 챔피언스필드에서 터졌다. NC유니폼을 입고 지난 3일과 4일 광주경기에서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렸다. 7월 성적만 본다면 당당히 KBO리그 타자 가운데 홈런 1위(5개)이다.

이우성은 이적후 인터뷰에서 “빨간 유니폼이 너무 좋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다. 최선을 다하

겠다”고 이적을 밝혔다. 이어 “나는 홈런타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밸런스가 안맞고 마음대로 안되더라”면서 겸손했다. 이런 자기 겸손이 욕심내지 않는 타격으로 홈런을 양산하고 있다.

이날도 인터뷰에서 겸손한 발언을 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멀티홈런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타격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올해는 마음을 비우고 타격하고 있다. 결과는 모두 운 때문이다. 오늘 홈런을 포함해 이번 주 홈런은 모두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우성은 트레이드 당시 3월 타자를 내주고 미래의 거포를 영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거포임을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과 외야 수비력까지 보강한다면 납부받지 않는 젊은 거포로 이적 신화를 쓸 가능성도 엿보인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골든볼’ 이강인, 골든보이 어워드 80인 후보 포함

팬 투표서 전체 8% 득표...10월 중순 최종 20인 발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골든볼(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이강인(18·발렌시아)이 ‘2019 골든보이 어워드’ 80인 후보에 포함됐다.

이탈리아 매체인 ‘투토 스포르트’는 17일(한국시간) “100명의 후보 가운데 첫 번째 탈락자들이 나오면서 후보가 80여명으로 좁혀졌다. 10월 중순에 발표될 최종 20인까지 매달 15일, 후보자들을 추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강인은 이 명단에 남았다.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다.

앞서 이강인은 이 매체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총 6만4673표 가운데 전체 표의 8%에 해당하는 5080표를 얻었다.

1위는 터키 출신의 1999년생 유망주 압둘카디르 오뮈르(트라브존스포르)로, 전체 18%에 해당하는 1만910표를 얻었다.

투토 스포르트가 2003년 처음 제정한 ‘골든보이 어워드’는 유럽의 1부리그 클럽에서 뛰는 21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남긴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투토 스포르트를 포함해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라이, 스카이 등 이탈리아 언론과 레퀴프, 프랑스 풋볼(이상 프랑스), 마르카, 문도 데포르티보(이상 스페인), 빌트(독일), 더 타임즈(영국), 아볼라(포르투갈), 더 텔레흐



라프(네덜란드), 블랙(스위스), 스포르트 익스프레스(러시아), 아토포블라데(스웨덴), 스포르트데이(그리스)는 유럽 축구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매체의 기자 40인을 대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다.

뉴시스

美야구매체 “류현진 FA 랭킹 7위, 3년 4800만 달러 수준”

부상 이력·2014년 이후 150이닝 던지지 못한 점 지적



올 시즌을 마치고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류현진(32)이 FA 랭킹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야구전문매체 MLB 트레이드 루머스닷컴은 17일(한국시간) 올해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에 대한 평가

를 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FA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부상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류현진은 다저스의 1년 1700만 달러 쉐리파인오퍼를 수락했다. 올해 다시 FA 자격이 된다.

루머스닷컴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류현진이 호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5번의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1.97을 기록한 것과 올해 평균 자책점 1.78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올해 2.5%의 타자에게만 볼넷을 허용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리그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부상 이력과 2014년 이후 150이닝 이상 던지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내구성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단 것이다.

이 매체는 “내년 33세가 되는 류현진은 리치 힐 정도 규모(3년 4800만 달러)의 계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FA 랭킹 1위는 강속구 투수 개릿 폴(휴스턴 애스트로스)이라고 예상했다. 2위 워싱턴 내셔널스의 내야수 앤서니 렌던, 3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투수 매디슨 벡커, 4위 뉴욕 메츠의 투수 잭 윌러, 5위 보스턴 레드삭스의 외야수 J.D. 마르티네스, 6위는 뉴욕 양키스의 투수 아롤리스 체프런이 올랐다.

사격 스키트 김민지, 대통령경호처장기 대회 신기록 우승

한국 여자 스키트 사격의 1인자 김민지(창원시청)가 제14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지는 16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스키트 여자 일반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본선 1위(115점)로 결선에 진출한 김민지는 결선 합계 50점을 쏘 대회신기록(종전 47점)을 작성하며 관록의

손혜경(대구시설공단·4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김민지는 지난 5월30일 득녀 후 한 달여 만에 참가한 실업연맹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1위에 오르며 한국 산탄총 여자 1인자임을 재확인했다.

공기소총 여자 일반부에서는 조은영(청주시청)이 우승했다. 조은영은 한때 탈락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중반 이후 고득점을 몰아쳐 대회신기록



인 251.5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금지현(경기도청·249.8점), 3위는 정은혜(미추홀구청·228.4점)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북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세미곡,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